

지역 소식통

농촌 일손돕기 창구 설치
정읍시 인력 수급 팔걸어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노동 인력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인력이 심각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작업은 계절적 특성이 강해 봄철(4~6월)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 필요로 한다.

이에 정읍시가 제2청사인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일손돕기 창구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며 인력난 문제 해소에 나선 것이다.

상황실을 운영하며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와 일손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농촌 적재적소에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평소 5월 시작했던 농촌일손돕기를 이달부터 조기 시행하고, 노동 대책 수단인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예정된 각종 농기계 보급사업에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농기계임대은행은 임대료를 50% 감면하며 농가 돕기에 힘을 합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특산물 소비촉진

부안군은 8일 관내 농식품 기업과 협업해 군청 구내식당 점심메뉴로 메밀국수를 제공하는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농산물로 만든 식품을 지역민에게 홍보해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부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메밀은 전량 수매돼 메밀가공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타 지역 업소용(대용량)으로 납품되고 있다.

군은 향후 가정용 소포장 제품 및 편의점 간편식 등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상품과 부안만의 특색을 살린 제품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알리고 관측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코로나 핀셋 처방

도농융합 도시 특성 따라 이달부터 분야별 방문 조사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사각지대 피해정도 파악 중점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발로 뛰고 있다.

특히 도농융합 도시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정책 추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 업종을 철저히 점검·분석하는 '핀셋형 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듣기 위해 분야별(농수축산업, 제조업, 관광·숙박, 서비스업)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수·축산물의 현재 피해정도 파악에 중점을 뒀다.

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스포츠강사, 연극·영화 종사자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군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현장을 찾아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인력수급, 관로확대, 정부·도 지원방안 등의 건의를 수렴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이 집계되면 대응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해 장기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3월27일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전선미 부군수가 경제대책위원장을 맡고 총괄대응팀,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팀, 농·수·축산물 유통·소비촉진팀, 취약군민 지원팀, 지역관광 대책팀 등 5개의 실무팀을 운영하는 경제위기 극복 비상체제가 돌입한 상태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면밀하고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해갈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 가용 예산과 역량을 총동원해 전혀 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 하는데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채석강과 적벽강, 숲섬 등 부안지질명소의 자원을 활용해 '부안으로 떠나는 지질탐사 여행'이라는 제목의 외국어 교육교재를 제작·배포했다.

'지질탐사 여행' 외국어 교육교재 제작

부안군, 채석강·적벽강·모항 등 홍보 자료로 활용키로

부안군은 채석강과 적벽강, 숲섬 등 지질·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부안지질명소의 자원을 활용해 '부안으로 떠나는 지질탐사 여행'이라는 제목의 외국어 교육교재를 제작·배포하고 탐방 프로그램 활동자료로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교재는 1·2권으로 제작했으며 1권은 부안의 대표 지질명소인 채석강과 적벽강의 지질 및 퇴적구조 등을 학습하기 쉽도록 쿼츠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2권은 숲섬, 모항, 직소폭포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은 교육교재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외국인 대상의 탐방객 만족도 향상 및 지질공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로 제작했다.

외국어 교육교재는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지질공원 국외행사, 세계캠버리 관련 행사 등을 통해 배포돼 부안을 홍보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어 교재는 외국인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 063-580-4437, syke89@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실외 공공 체육시설 5개소 임시휴관

8~19일... 종합경기장 등 코로나19진행 상황 따라 연장 가능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시민안전에 지키기 위해 실외 공공 체육시설에 이어 실외 공공 체육시설 5개소에 대해 임시휴관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실외 공공 체육시설은 총 5개소로 종합경기장과 정읍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풋살장, 신태인축구장, 칠보축구장이다.

휴관 기간은 8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외 체육시설은 휴관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실외 공공 체육시설을 휴관함에 따라 전주, 광주 등 인근 지역민들이 정읍시의 체육시설을 예약,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시설 운영을 재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나 다소 불편하더라도 휴관 기간동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실외 공공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제한 대상 민간 체육시설 44개소에 대해 임시휴업 권고 및 방역물품 배부, 준수사항 현장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정읍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코로나19 대응 수위 한층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동참

고창군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내 소규모 집단감염 시설 총 343개소(종교시설,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연장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2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예방 수칙을 준수토

록 하고 미준수 시 집합금지명령,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명령도 즉각 발동한다.

군은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사항 준수 여부 등의 현장 점검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타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과 관련해선 군 경찰서와 연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

고제 등도 운영한다.

또 따뜻한 기온 탓에 입장객이 늘고 있는 고창읍성, 구시포해수욕장 등에선 마스크 착용 캠페인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확대 실시 할 방침이다.

고창군 김재관 재난안전과장은 "정부가 이번 연장조치를 내린 만큼 적극 동참할 것이다"며,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한 이번 조치에 군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 전면 취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탓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탓에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게 됐다.

8일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추진위(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긴급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5월로 잠정 연기했던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찾아들지 않고 있으며, 전국에서 불특정다수의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추진위원들은 "축제 슬로건 공모 등 모든 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현재 군민, 관광객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올해의 아쉬움이 내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지금부터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축제가 취소되었으니 방문을 자제 바란다'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흑시모를 바이러스 감염 차단에 힘쓰고 있다. 또 축제 취소로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 상점 이용과 농산물 구매 등 소비활동 독려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당분간 고창 청보리밭 방문을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7년의 역사를 지닌 청보리밭 축제는 고창군 전역(1408ha, 여의도 면적 4.8배)에 조성한 유채꽃과 함께 포토존을 만들어 2개 이상의 포토존 방문시 고창사랑상품권과 관내음식점 할인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는 축제를 준비해 왔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